

법보중흥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5일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법전 스님(조계종 중흥),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세민 스님(해인사 주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연건평 1082평으로 국내 성보박물관 중 최대 규모인 해인사 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회화 전문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이나 스님들의 유품이 주가 되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처럼, 해인사 박물관도 '법보 중흥'이라는 사찰 특색을 살려 대장경관 전시, 백남준 고려대장경 비디오 아트 상영, 인형체형실(印形體象室) 등을 운영, 서지학 전문박물관으로 특화된다.



◇해인사성보박물관 전경.

◇개관 법요식에서 조계종 중흥법전 스님이 법문을 하고있다.

'서지학 전문박물관' 특화

해인사 박물관장 향적스님



"해인사는 팔만 대장경이라는 세계 문화유산이 봉안되어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목판과 서지학적인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경판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적 스님은 해인사 박물관을 서지학 전문 박물관으로 특화시키려는 목적 외에도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박물관의 역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교육활동입니다. 사회를 교화하고 교육을 담당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사찰의 성보박물관이 아날로 교화와 교육 모두를 담당할 수 있는

건물 곡선화... 주변과 조화

해인사는 1488년 현재의 웅진전 자리에 해해당을 짓고 역대 고승의 영탑을 봉안한 것이 그동안 박물관 비슷한 역할을 해 왔다. 1995년 2월 11일 산중회의에서 현재 위치로 박물관 건립부지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박물관 건립에 들어갔다. 옛 해인초등학교 자리에 박물관이 건립된 것에는 자운, 성철 스님의 의지가 담겨있다. 원택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에 따르면 두 스님이 '해인사는 수행공간으로 하고 옛 초등학교 자리는 신행공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 전 주지인 지관, 보광 스님과 현 주지 세민 스님이 차례로 불사를 추진해 왔다.

박물관은 해인사 신 불교문화단지의 한 부분이다. 1980년에 결정된 불교문화단지는 사찰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때 동시에 관광마을을 낳기 위하여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됐다. 불교문화단지가 완성되면 해인사로 수련이나 참배를 온 사람들이 박물관에 둘러 회귀 성보를 참배하고, 역사를 배우며, 인경을 살펴 체험하면서 불자로서의 부당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공개유물 250점 일반에

해인사 박물관은 앞마당을 한국의 전통마당처럼 하고, 건물 높이도 위압감에서 벗어나도록 완만한 곡선과 평면성을 강조했다. 외관은 재료본래의 색채를 그대로 나타내게 하여 주위의 환경과 친화되도록 했으며, 유물관 2층은 원형 돌을 형성하여 바깥의 가야산 자락과 유연하게 어울리는 유기적인 내부공간을 창출하려 했다. 건축가 김석철 교수명칭대는 21세기의 건축모형과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고찰인 해인사의 모습과 어울려서 현대의 전통이 조화

해인사 박물관 개관... 화엄성보 한눈에



◇해인사 일주문앞에 있는 길상탑 발원 소담불.



◇보물 제999호 목조희랑조사상, 10세기 중엽 조성. 전래된 것으로 유일한 스님의 목조초상조각이다.



◇해인사를 개산한 순응 스님의 전영.



◇조선 순조 18년(1818)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추사 김정희 필 대웅전 상량문.



◇도제나한상 전영각엔 선열당에 있던 것으로 각 얼굴이 매우 개성적이다.

를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해인사는 오랜 전통의 고찰답게 1천여 점의 소중한 성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50점이 일반에 공개된다.

1층 성보유물전시실 중 역사실에는 국보 제32호 고려대장경관, 국보 제206호 고려리판과 김정희 필 해인사중건상량문을 비롯한 해인사 관련 역사유물과

보물 제1273호 영산회상도를 봉안, 해인사의 역사와 변천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조각실은 보물 제999호인 목조희랑조사상(木造希郞祖師像), 목

조 세석천상 등이 전시돼 있고, 불화실은 팔상도 병풍을 비롯한 조사도, 심우도 등이 전시되어 있다. 공예실에는 보물 제1253호 해인사 대적광전 '홍치4년(弘治四年) 명 동종을 비롯한 공예품이, 서화실에는 세

조 전영(世祖 眞影), 어림(御筆), 대통령 전필 등 해인사와 관련된 서화가 전시된다.

이 가운데 특히 목조희랑조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인근에 수련원·만불전등 조성

"한국불교 이해하는 교육장소"

곳입니다. 또한 박물관을 통해 종교와 지역을 막론하고 한국불교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간 5억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복안도 귀뜸한다.

"입장료와 박물관 옆 부속건물에 대표소, 겸 휴게실, 전통 찻집, 사찰음식 식당을 만들어 그 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경비는 일단 사찰에서 지원받고 박물관 근처에 종합불교수련원과 만불전 등을 조성, 자금 자족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박물관은 기획전시실을 비롯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이다. 스님은, 미비점으로 지적된 것을 보완해 한층 내실 있고 모범이 되는 성보박물관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발견된 유일한 스님의 목조 초상 조각이다. 신라 말 고려 초 화엄종의 고승이었던 희랑스님(889-956)이 수행하던 10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사상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초상기법이나 불상양식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추사 김정희가 직접 쓴 해인사중건상량문은 1818년에 추사가 감색 비단에 글씨로 쓴 해서체의 글로 '완당집'에 실려 있는 것의 원본이다.

'희랑조사상' 살아있는 듯 생생

이 밖에도 조선 초 1491년에 제작된 홍치4년명 동종은 대적광전의 의식에 사용되는 종으로써, 형태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종신에는 명문이 있어 그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신라 진정여왕 때 세경의 혼란기를 틈타 전국 각처에서 봉기한 도적의 무리들이 해인사를 침범하자 이에 맞서 사보를 수호하다 사망한 56명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길상탑 발원 소담 및 탑지도 전시된다. 이는 1966년 여름, 석탑 내부의 유물을 철거한 전문 도굴범들이 검거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는데, 소담 70기, 탑지 2매, 탁본 2매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대여해 9월 30일까지 전시한다.

한편 2층에는 백남준의 고려대장경 비디오 아트를 상영해 시각적 효과에 익숙한 청소년층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목판 대장경 인형체형실에는 화엄경변상도, 법화경 등의 원판을 모방한 판에 직접 먹을 발라 찍어서 가져갈 수 있는 체험의 장소 마련한다. 0551934-0988 해인사=남동우 기자 dnam@buddhapa.com

◇전국 성보박물관·유물전시관

양산 통도사	055)382-1001
예산 수덕사	041)337-1969
해남 대운사	061)534-5502
평상 월정사	033)331-6661
김제 금산사	063)548-7844
대구 동화사	053)985-4404
고성 옥천사	055)672-0100
순천 선암사	061)754-6062
영암 도갑사	061)472-0521
순천 송광사	061)755-0107
김천 적지사	054)436-6174
밀양 표충사	055)352-1150
영주 부석사	054)633-3464
보은 법주사	043)543-3615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개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전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 온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폭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증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을 앞에 우리민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임동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 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활(活活)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문의 : 053-652-3300